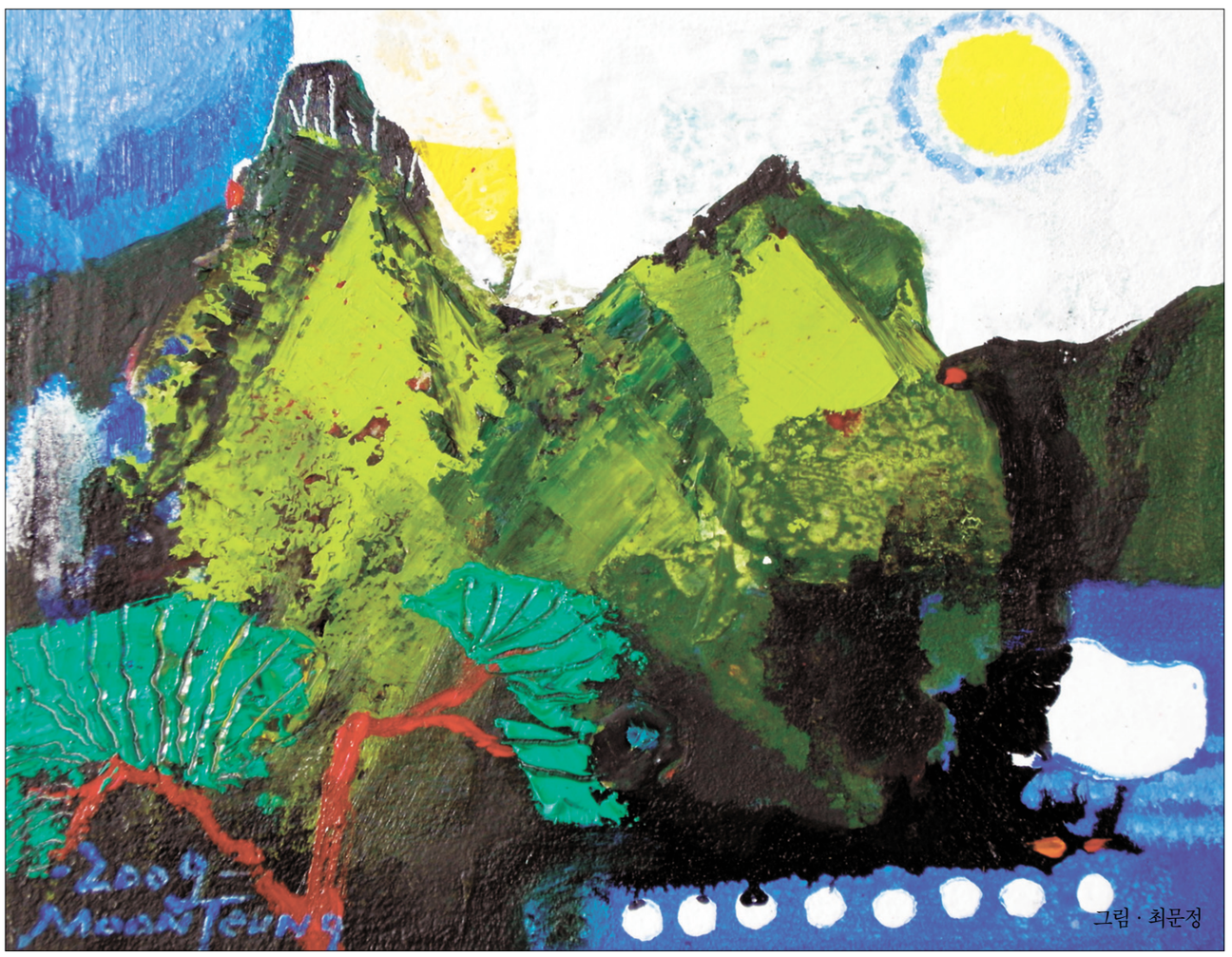
천상천하 독보하며 짝할 이 없으니… 세상 으뜸가는 법왕일세




그림 · 최문정

월례 묘관음사는 동해의 소금기 머금은 바람이 늘 불어오는 청량한 곳에 있었다. 그래서인지 묘관음사 공양간에는 바다에서 건진 돌김이나 생미역이 올라와 스님들의 입맛을 돋우었다. 체구가 우람한 데다 성격이 호탕해 향곡은 도반들 사이에서 호호법당(好好法堂)으로 불렸다. 그가 산길을 뚜벅뚜벅 걸을 때면 마치 법당이 한 채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해 붙인 별명이었다. 향곡은 먹성도 좋았다. 호젓한 암자에 사는 수좌를 찾아갈 때는 늘 손에 보따리를 들고 다녔다. 국수를 좋아하는 수좌에게는 국수를, 김을 좋아하는 수좌에게는 김을 갖다 주었다. 묘관음사에서는 생미역이 나는 철이 돌아오면 수좌들을 불러 생미역 공양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기장과 월례의 생미역과 돌김은 옛날에 임금에게 진상하던 토산품으로 유명했다. 동래나 부산 처녀보다 기장 처녀가 낫다는 얘기가 있지만 청정 동해바다에서 나는 기장 미역은 기장처녀보다 더 쳐준다고 자랑할 정도였다.

한낮 햇살이 뜨거운 날, 혜암이 묘관음사에 도착하자 낯이 익은 한 수좌가 말했다.

"스님, 이곳은 겨울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공양간이 시원찮습니다."

"공양간이 시원찮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묘관음사에 온 것은 향곡 조실스님 뵈러 온 것입니다."

"하하.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잖습니까."

"도대체 묘관음사에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자랑을 합니까."

"겨울철 바닷가에서 캐낸 생미역을 살짝 데쳐 고추장에 찍어먹어 보세요. 용맹정진으로 심신이 지쳐 있다가도 정신이 번쩍 나니까요."

"선방 수좌들이 차 한 잔으로 정신을 맑힌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지만 생미역으로 심신을 추스린다는 얘기는 처음입니다."

"그뿐입니까. 바다 향기를 더 맡으려면 데치지 말아야 합니다."

> "생미역 맛에 탐착하는 것은 본심을 잃고 사물에 지배를 받는것…"

스님은 혜암에게 생미역 예찬을 계속했다. 그때 향곡이 조실채에서 방문을 열고 나왔다. 새로 온 객승에게 생미역 자랑이 지나치다 싶은 듯 헛기침을 했다. 혜암은 고개를 크게 숙이며 합장했다. 혜암을 압도하는 체구는 여전했다.

향곡은 혜암을 기억하고 있었다.

"혜암수좌 아닌가. 해인사에서 오는 길인가."

"경봉스님을 모시고 정진했습니다."

"노장님은 잘 계시던가."

"수좌들이 많이 찾아와 분주하십니다."

"그러실 거네. 우리 은사스님하고도 인연이 많으신 분이네."

그제야 향곡은 경봉 회상에서 정진하고 왔다는 혜암을 반갑게 맞아들였다. 지난겨울에 경봉이 보내준 시를 향곡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흰 구름 푸른 봉우리에
향기로운 소리 골에 가득하네
무진장세계에
산은 깊고 물은 차도다.
白雲靑峰 香聲萬谷
無盡藏界 山深水寒

향곡(香谷)을 '향기로운 소리(香聲)가 골에 가득하다'라고 푼 시였다. 향성이란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낸 선어(禪語)였다. 시를 받은 향곡은 언젠가 경봉에게 백지법문(白紙法門)을 보내리라고 작심했다. 편지를 보내되 봉투 안에 백지를 보내는 것이 백지법문이었다. 백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회답을 바란다는 것으로 마음이 통하는 선사들끼리만 주고받는 선가의 전통이 있었다. 일찍이 오대산 한암도 경봉에게 백지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혜암은 경봉에게 극락암 선방에서 직접 들은 적이 있었다.

"백지는 쩔쩔 끓는 당구솥(무쇠솥) 같아서 무어라고 입을 댈 수 없는 경지이다. 설사 불조(佛祖)라도 입을 댈 수 없다. 입을 대면 타버린다."

다음날, 공양을 마치고 차를 마시는 다시(茶時)에 생미역을 자랑하던 스님이 도마에 올랐다. 대부분 스님들이 경책을 했다. 맛을 탐해 탐식을 하거나 좋은 맛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맛에 집착하면 견성을 이룰 수 없다고 대부분 스님들이 한 마디씩 거들었다.

"맛에 집착하면 매(昧)하게 됩니다. 대혜스님은 매하면 본지풍광과 본래면목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생미역을 찬탄하던 스님은 기가 죽어 아무 소리도 못했다. 한 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이 '당신은 견성하기 어렵다'고 하니 풀이 죽을 만도 했다. 그러자 한 스님이 변호하고 나섰다.

"도대체 견성이 무엇입니까. 견성이 무엇이길래 음식을 소태 씹듯 해야 합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불성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미역에도 불성이 있을 것이며 미역의 맛은 미역의 본성일 터인데 미역의 본성인 미역맛을 음미한 것이 어찌 견성에 장애가 된다 합니까."

또 한 스님이 편이 되어 주었다.

"맛을 제대로 아는 것이 여실지견(如實知見)이 아니겠습니까."

스님들의 진지한 얘기는 마침내 <능엄경>에서 부처님이 견성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대목으로 옮아갔다. 기원정사 강당에서 아난이 견성을 설하는 부처님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던 것이다.

"견성이라고 하는 진리가 본래부터 세계에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강당 안에 있을 때는 그 진리는 이 강당 안에 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세계에 가득 찰 정도로 큰 그 진리는 작게 압축되어 이 강당 안에 있게 된 것인지, 아니면 벽이 막고 있는 것인지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아난의 질문에 부처님의 대답은 이러했다.

"예를 들어 네모진 창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경우, 하늘을 네모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만약 네모진 것이라고 단정하면 둥근 창을 통해서 보는 하늘은 둥글지 않아야 한다. 만약 하늘이 네모진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면 네모진 창을 통해서도 둥근 하늘이 보여야 한다. 네가 묻는 것과 같이 방안에서 견성이라고 하는 진리가 작게 압축되었다고 하면 밖에 나가 해를 쳐다볼 때는 진리를 확대해서 태양에 닿도록 해야 할 것이나 당치 않다.

모든 사람은 무시이래(無始以來)로 자기를 잃고서 외부의 사물에서 자기를 보려 하고 본심을 잃고서 외부의 사물의 지배를 받아 크다 작다 한다. 만일 자신이 사물을 지배할 수 있으면 여래와 한 가지로 몸과 마음이 원명(圓明)해져서 이 도량을 나가지 않고도 하나의 털끝에 시방국토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향곡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게끔 정리했다.

"생미역의 맛에 탐착하는 것은 본심을 잃고 사물에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견성이 어려울 것이 아니겠는가."

향곡의 법문은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힘차고 장쾌했다. 경봉이 쉬운 우리말로 멋들어지게 법문한다면 향곡은 고준한 한자어의 문어체를 좋아했다. 훗날, 불법의 대의를 설법하는 향곡의 법문에도 고준함이 가득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보광삼매에 드시어 실상무상이요, 불립문자요, 교외별전이요, 심심미묘한 최고무상의 정법안장과 열반묘심을 마하가섭에게 부촉하셨습니다. 그 뒤 거듭거듭, 고금의 헤아릴 수없이 많은 큰 지혜의 성인들이 이 세상에 출현해 스스로가 원만하게 갖추고 있는 걸림 없는 큰 법을 자유자재하게 쓰셨습니다.

때로는 제왕의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관대작의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장자의 집안에, 때로는 부귀한 집안에, 때로는 빈천한 가정에 태어났고, 때로는 여인의 몸을 받아 태어나서, 여러 번 부처가 되기도 하고 조사가 되기도 했으며,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세관 출세간에 머물렀습니다.

번뇌가 없는 큰 지혜와 원만히 통하고 원만히 밝은 항하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묘용과 자재하고 걸림 없는 백천법문과 무량한 삼매를 본래 스스로 갖추었습니다. 본래 스스로 원명하고 청정하고, 본래 번뇌가 없고, 생사가 없고, 본래 미함과 깨달음이 없으며, 본래 차례가 없고 본래 계급이 없고 본래 범부와 성인이 없고 본래 닦음과 얻음도 없는 것입니다.

만법이 원만하고 만법을 갖추었고 만법이 한결같고 만법이 청정일여할 뿐만 아니라 본래 일이 없나니, 시방세계에 빛나고 인연 속에서 당당하게 머물며 삼계 속에서 안락하고 자재하며 걸림 없기 마련입니다. 때를 만나면 병에 따라 약을 주고 바람이 불면 풀이 쓰러지고 물이 넘치면 도랑을 이루나니, 자연히 못과 쇠를 끊고 수만 자루의 칼로 벽을 세우며, 쇠를 녹여 금을 이루고 금을 녹여 쇠를 이룸이 골수에 사무쳐 자재롭고 원통(圓通)합니다.

또 때로는 향상(向上)의 한 마디를 나타내고 때로는 향하(向下)의 한 마디를 나타내며 때로는 여래선과 조사선을, 때로는 최초의 한 마디, 때로는 최후의 한 마디를 합니다. 더불어 때로는 큰 기틀과 큰 작용을 보이고 때로는 죽이고 살리고 주고 빼앗으며, 때로는 선정에서 나와 마음대로 향하고 때로는 거두고 놓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주고 빼앗음에 짝할 이 없으며, 비춤과 씀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방편과 진실이 자재하고 순(順)과 역(逆)에 걸림이 없고 응용이 무애한 것입니다. 네거리 한복판에서 마음대로 노닐고, 티끌 세상에 묻혀 오른쪽을 마주보며 왼쪽을 바로보고 왼쪽을 마주보며 오른쪽을 보나니, 전광석화로도 통할 수 없고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티끌에도 물들지 않고 시방세계에 자취를 남김없이 대자재 무애하며 크게 청정하고 크게 당당하고 크게 활발한 것입니다.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가 본래 대해탈의 보리세계요, 백천 항하사 모래알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계가 본래 청정한 대적멸도량(大寂滅道場)입니다. 꽃과 풀들은 모두 제불께서 몸을 나타낸 것이며 모든 사람과 물건들은 일천 성인께서 정법을 제창함이며, 모든 국토 속에서 법을 잃고 법을 파하는 것은 도인께서 참된 법을 마음대로 수용해 다함이 없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작용이 무궁하고 취함 또한 끝이 없어서, 영원토록 천하를 홀로 거닐고, 삿됨이 없음을 드러내며, 영원토록 자재하고 생사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며, 영원토록 고요하고 밝으며 한결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한 영원토록 뛰어나고 한가로우며, 영원토록 체(體)가 스스로 한결같으며, 영원토록 뚜렷이 밝고 고요히 비추며 원만히 통하고 밝으며, 영원토록 장애가 없으며 영원토록 광대하고 신령스럽게 통하며 밝게 빛납니다.

위음왕불 이전으로 한걸음 나아가니
산은 밝고 물은 맑으며 해와 달은 영원하네
천상천하 독보하며 짝할 이 없으니
천상과 인간 세상의 으뜸가는 법왕일세.>

혜암은 향곡의 법문에 미소를 지었다. 견성한 각자(覺者)가 천상천하 독보하며 짝할 이 없으니 천상과 인간 세상의 으뜸가는 법왕이 아닐 수 없었다. <계속>

